

경기일보



'평화의 길목' 경기북부... 한반도 新경제 중심에 선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국가성장동력'을 이룬 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경제 중심
인근 7기 전까지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에 총 28조 원의 투자를...

해 25개 분야 투자한다. DMZ 남북협력선 사업 시
간 중 북한에 경제 협치는 지역에 호반형 평안남
북협력구역을 확대하는 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민선7기 경기북부 전담사업
'특별한 희생' 전경자 등 28조 투자
2022년까지 4개 분야 25개 핵심사업
한반도 미래 이룬 '평화 체계'로 도약

평화협력 선드림과 함께
통일경제특구·DMZ 생태평화지구 등
남북교류거점 완성... 지역경제 활성화

희생 이룬 '희망의 땅'
인보 화평 등 두원·연남·포천·가평 등
규제 완화로 2차 지역균형 발전 추진
국가산단·이도원 등 '특별한 보상'

북부권-연남 208억 원에 4천 640억 원이
투자된다. 강원도 개마고개-고사령간 도로 복
원도 추진한다.

남북간교도교량 건설 사업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강원도 연남 지역 간의 유출 등에 그동안
지속했던 남북교류 도로복원을 확대한다. 경
기북부지역 고속도로의 경우 재2순회고속도로,
전철-구급 간 고속도로가 공사중이며, 서울-
원삼간 연차도로도 조성되고 있다. 그 동안 지지
부진했던 비군 인촌 공여지 개발은 국가 주도개
발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선되는 등 차차적
으로 내실 추진된다. 이는 연평공여지구 개발 시

업에는 총 20조가 투자될 예정이다.

■평화협력 선드
'특별한 희생' 사업에서는 총 277억 원
을 들여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반조성 및 확대 방
안이나 생태농업 공동연구, DMZ 생태평화지구 조
성, 통일연구 센터설치, 평화벨트 조성, 평화누리
길 조성사업 추진 등 평화협력 사업에 남북교류거
점으로 떠오르는 5개 사업을 추진한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4월의 47억 원이 투입
돼 DMZ 남북협력 사업 발원지 확대에 나선다는
다. 평안남도 평안군에 평안시립농업사업도 30억 원이
지원된다.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은 평화
의 초여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우수한 생태자원을
통합한 관광활성화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계획이다.

과수이 단원권 원우리-이도원 간 도로 187km
연장지구 중심구역 개발비용을 위해 연구용역
도 추진 중이다. 평화누리 지원사업 조성은 430
억 원을 들여 김포·대관령-연남 개교도로 28.2km
구간을 연결할 계획이다.

■남고 넓은 경기 북부
오는 8월 25일 경기북부특별안 통과를 위한 총 30
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 경제, 보건, 문화, 민생-민중
을 종합적으로 풀어 안보와 복지를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북부권 내 20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연남과 개마
고개간 도로교량 건설 사업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강원도 연남 지역 간의 유출 등에 그동안
지속했던 남북교류 도로복원을 확대한다. 경기
북부지역 고속도로의 경우 재2순회고속도로,
전철-구급 간 고속도로가 공사중이며, 서울-
원삼간 연차도로도 조성되고 있다. 그 동안 지지
부진했던 비군 인촌 공여지 개발은 국가 주도개
발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선되는 등 차차적
으로 내실 추진된다. 이는 연평공여지구 개발 시

할 계획이다.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분야에는 중앙구체
로 교통을 관리는 국유지구의 관할영역과 관련
제반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2차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 특별관 리원 7개 기업형인 연구, 국
사시설 관리지, 자영업발전이 특구이며, 농수산
업기반을 다지 조성, 관련 보건의료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대감 높인 '희망의 땅'
오는 8월 25일, 평안도, 경기도, 경상도 등 3개 도
2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는
2022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이 추진된다.

■평화 협력, 특별한 보상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분야에는 중앙구체
로 교통을 관리는 국유지구의 관할영역과 관련
제반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2차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 특별관 리원 7개 기업형인 연구, 국
사시설 관리지, 자영업발전이 특구이며, 농수산
업기반을 다지 조성, 관련 보건의료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대감 높인 '희망의 땅'
오는 8월 25일, 평안도, 경기도, 경상도 등 3개 도
2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는
2022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이 추진된다.

■평화 협력, 특별한 보상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분야에는 중앙구체
로 교통을 관리는 국유지구의 관할영역과 관련
제반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2차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 특별관 리원 7개 기업형인 연구, 국
사시설 관리지, 자영업발전이 특구이며, 농수산
업기반을 다지 조성, 관련 보건의료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개방 행사 열려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개방을 하루 앞두고 오늘(9일) 오전 파주 도라산 역에서 개방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의 동서횡단구간 노선 조사를 올해 안에 마치고 2022년까지 지역별 거점센터를 만들어 세계적인 걷기 여행길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비무장지대를 역사·생태·문화가 함께 하는 평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고성 구간, 6월 1일 철원 구간을 개방한 데 이어 파주 구간도 개방되면서 DMZ 평화의 길 3개 시범구간이 모두 열리게 됩니다.

오늘 파주 구간 개방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이산가족, 학생 등이 초청돼 탐방 코스를 체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